



—
리얼 배구 스토리를 만나다!
국내 최초 배구 매거진 <스페셜 V>

KBS N

m a g a z i n e

VOL.20 NOVEMBER, 2017 KBS N



겨울 스포츠의
최강자
프로배구 2017-2018 V-리그!



20살로 돌아간 38살 양숙 부부의
'과거 청산X인생 체인지'

고백부부 GO BACK



KBS N magazine

VOL.20 NOVEMBER. 2017 **KBS N**

한국방송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조성과 전문성을 키워 뉴미디어를 선도하며,
급변하는 미래 방송 환경을 주도하는 일류
방송기업으로 도약해나가고 있습니다.



Cover Story

KBS N SPORTS의 배구 중계
를 대표하는 신승준 캐스터.
문용관 해설위원이 뜨거운 승
부가 펼쳐지는 배구 코트 위
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www.KBSN.co.kr

발행인 이준용
발행일 2017. 11. 6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전화 02-787-3455
기획 정책기획팀 정운재, 손영주
제작·디자인 DNC www.thednc.co.kr

〈KBS N 매거진〉은 매달 첫째 월요일에 발행됩니다. 소식지에 대한 의견이나 기사 제보는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 pr@kbsn.co.kr
창의적인 기업문화와 트렌디한 정보가 담긴 KBS N 매거진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세요.
www.kbsn.co.kr/magazine.do

04 N focus

KBS N,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주관 방송사로 활약



06 N special 1

배구는 역시 주관 방송사 KBS N!
KBS N SPORTS 2017-2018 V-리그 중계 돌입



10 N special 2

국내 최초 배구 매거진 〈스페셜 V〉
MC 조진혁, 조은지 아나운서 인터뷰



12 N trend

로코부터 스릴러까지 KBS JOY
젊고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간다!



14 N contents

성(性)에 관한 속 시원한 이야기
KBS N 웹 예능 〈성성정보통〉



16 N program

WKBL 개막특집
〈셰프가 간다〉



18 Issue

KBS N이 공동 제작한
〈고백부부〉 패조의 스타트!

20 N news

총괄대행사 KBS N, 성공적 개최 준비 완료!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개막!



가을에는 조화가 있고, 가을 하늘에는 광채가 있다.
이는 여름 내내 듣거나 볼 수 없던 것이다.
마치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 피시舍利



KBS N,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주관 방송사로 활약

- ◎ 개·폐회식과 15종목 KBS N SPORTS 생중계
- ◎ 중계 제작진,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150여 명이 넘는 전문 인력 대거 투입

KBS N은 제98회 전국체육대회의 주관 방송사로 지난 10월 20일부터 7일간 선수들의 뜨겁고 열정 가득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안방에 전달했다. 전문성과 제작 노하우를 갖춘 전문 인력 투입과 더불어 전국체육대회 특별 편성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중계를 마친 KBS N이 함께한 전국체전 현장의 모습들을 소개한다.

전국체전의 생생한 현장을 성공적으로 중계한 KBS N!

지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충북충주종합운동장 등 도내 70개 경기장에서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렸다. KBS N은 주관 방송사로 참여해 개·폐회식을 비롯해 수영, 태권도, 양궁, 씨름, 레슬링 등 15개 종목을 KBS N SPORTS 채널을 통해 성공적으로 생중계했다.

지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월드컵 국제남자 배구대회 등을 통해 스포츠 중계 능력을 검증받은 KBS N은 이번 전국체전 중계를 위해 제작진과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15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했다. KBS N은 종목별 다양한 모습과 생생한 현장의 감동을 즐길 수 있도록 특



히 국내 최초로 최첨단 장비인 4D 리플레이 카메라를 체전에서 사용했다. 4D 리플레이 카메라가 스포츠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된 대회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으로, KBS N은 인천아시안게임 육상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에서 이 카메라를 사용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또한 수영장에 국내 최초로 케이블캠(Cablecam)을 설치하여 국제경기에 버금가는 화면을 제공하며, 경기장별 설치된 초고속 카메라 및 HD 장비를 통하여 보다 박진감 넘치는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외 펜싱, 핸드볼, 씨름, 태권도, 근대 5종 등 전국체육대회 특별 편성과 함께 주요 하이라이트를 제작하여 각 경기 시험 전후로 방영해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었다.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전국체육대회!

이번 전국체전에는 17개 시·도, 46개 종목에 선수 1만 8,784명, 지도자 6,346명 총 2만 5,130명의 선수단과 1,123명의 해외동포 선수단이 참가했다. 개회식에서는 '생명의 땅'을 주제로, 관람객 참여 퍼포먼스와 국내 최고 스타트 치어리딩팀 레인보우 공연 이후 불꽃놀이와 멀티미디어쇼, 최상급 라인업 연예인들의 축하공연 등을 화려하게 선보였다. 전국체전은 10월 3일 인천시 강화군 마니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충주종합운동장에 안치, 점화되는 모습으로 7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2011년 세계 최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무예 택견이 이번 대회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어 선을 보이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 1 경기 주요 하이라이트를 전달하는 오효주, 염상엽 아나운서
- 2 전국체전 현장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전달해준 현장 스태프들의 화이팅 넘치는 모습
- 3 대회 5일째 열린 수영경기 중계를 하고 있는 조진혁 캐스터, 황성태 해설위원
- 4 최첨단 장비인 4D 리플레이 카메라가 찍은 다양한 각도의 태권도 경기 장면
- 5 중계차 안에서 경기 전 꼼꼼히 사전 체크하는 담당 PD



“Welcome to Volleyball!”

배구는 역시
주관 방송사 KBS N!

KBSN SPORTS
2017-2018 V-리그 중계 돌입

- 1.2 중계 전 VCR 영상, 카메라, 시스템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 3 초당 1,600 프레임을 담아내는 초고속 카메라 X10



대한민국 프로배구 주관 방송사,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독점 중계방송 계약 체결, 국제배구연맹의 극찬. 모두 명실상부한 배구 명가로 불리는 KBS N SPORTS의 이야기다. 2017-2018 시즌 개막을 맞이해 배구 경기의 생생함을 오롯이 담아내는 KBS N SPORTS의 배구 중계 현장을 찾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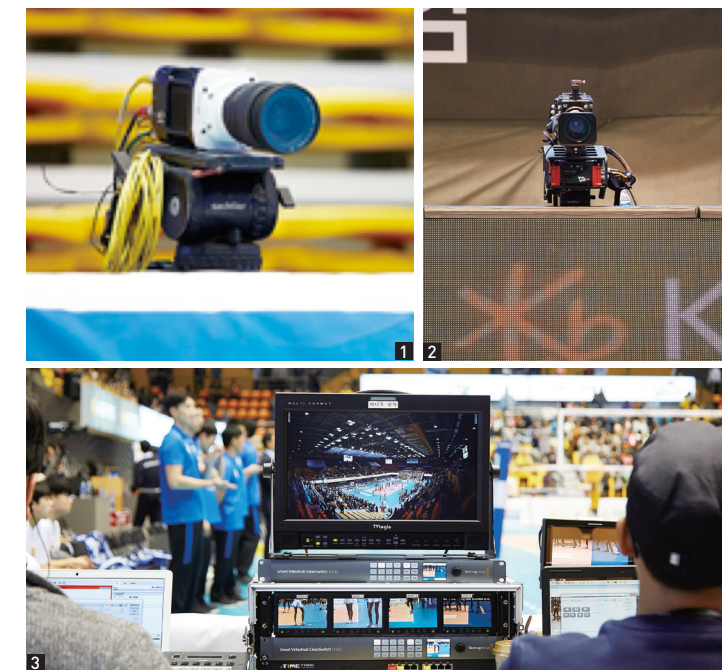
다이나믹한 영상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KBS N SPORTS!

2년 전, 최부시 선수(리베로)가 선수 대기라인 끝 쪽에 떨어지는 공을 쫓아가 발로 차올리는 인상적인 장면이 중계되었다. 믿기 어려울 정도의 다이나믹한 디그만큼이나 여러 각도의 카메라를 통해 역사적인 순간을 담아낸 KBS N SPORTS의 중계 또한 극찬을 받으며 다시 한 번 '배구는 역시 KBS N SPORTS'라는 말을 이끌어냈다. 이 일로 국제배구연맹 쪽에서는 “환상적이고 놀라운 플레이를 잡아낸 KBS N SPORTS 중계에 대해 열정과 헌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메일을 보내오기도 했다. 2005년부터 V-리그의 전 경기를 중계해온 KBS N SPORTS는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배구 중계에 대한 애착과 남다른 자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생동감 있는 중계를 위한 기술력 UP!

KBS N SPORTS 중계팀은 선수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40여 명의 중계 제작진들이 5시간 전부터 현장에 나와 중계차 케이블 연결, 카메라, 마이크 설치 등 만반의 준비를 하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KBS N SPORTS 배구 중계팀은 올해 4월 리그 종료 이후 6월 월드리그, 7월 달엔 월드그랑프리, 8월부터 개막 전 주었던 10월 첫째 주까지 전지훈련 동행 촬영을 이어가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 와중에서도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 등 사각 없이 완벽하게 담아내는 16대 카메라에, 새롭게 변한 비디오판독 룰(5세트에 총 20번씩)에 대비해 더 정확한 화면을 담아내는 초고속카메라 확충과 문용관, 이세호, 박희상, 이숙자에 이어 이영택 해설위원의 합류로 라인업 보강, 새로운 앵글을 위한 Fisheye pin cam(180도를 넘는 초광각 렌즈) 설치(예정), 코더(그래픽 이미지)의 변화 등 다각도에서 이번 시즌을 철저히 준비했다. 다년간 쌓아온 중계 기술 노하우에 새로움을 더해 이번 시즌에도 스포츠 전문 채널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더 생생하고 보기 편한 중계로 시청자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 1.2 서브 득점, 볼의 인아웃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사이드와 엔드라인 쪽 비디오 판독을 위한 초고속 카메라.
- 3 각 사이트에 설치된 비디오 판독용 카메라가 잡은 장면을 한 화면에서 모아볼 수 있다.



스토리 만드는 남자, 기록하는 남자의

신승준 캐스터 & 문용관 해설위원

‘일상적 배구’ 이야기!



신승준 캐스터 & 문용관 해설위원

저녁 7시에 시작하는 배구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3시간 전 체육관에 도착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 속에 긴장감 넘치는 중계를 마치면 어느새 시간은 밤 12시. 배구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이런 극한 일정을 180여 일 간 일상처럼 소화해내며 사는 두 남자가 있다. 수치분석을 통한 정확하고 냉철한 해설과, 똑같은 장면이지만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해 새로운 감동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캐스터와 해설위원이 하는 일이라고 전하는 신승준 캐스터와 문용관 해설위원. 1년의 반을 배구와 함께하는 그들에게 ‘배구’는 인생의 어떤 의미일까.



성격대로 하는 중계? 상호 보완되는 두 남자의 스타일

시즌 동안 남자부 7개 구단, 여자부 6개 구단의 경기를 생중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하다. 10년 차에 접어든 캐스터가 여전히 ‘어떻게 하면 퀄리티 있는 중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면 말이다.

“늘 반복해서 중계를 하다 보니 시즌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목표가 필요해요. 이번엔 시즌 전 전지훈련 탐방 특집 프로그램 준비로 중국, 일본, 경상남도까지 남녀팀 13개 구단 중 7개 구단의 전지훈련에 2달 정도 함께 동행했는데 확실히 환기되는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에서는 8년째 배구중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용관 해설위원도 마찬가지다. “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알면 알수록 긴장되는 게 배구 중계예요.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전부터 작년 데이터까지 체크해서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하죠. 한 선수가 중요한 기록을 갱신했다면 바로 시청자들에게 알려드리어야 하니까.”

사람마다 중계 스타일이 다르고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 그날그날 같이 중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준비하는 부분이 달라질 터. “내가 기록 중심으로 전달하는데 반해 신 캐스터는 경기 맥을 잘 잡고, 선수들과 팀 이야기를 토대로 스토리 라인을 구상하니까 서로가 보완되는 부분이 있다”는 문 해설위원의 말에 신 캐스터는 “현장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하고 서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말을 이어나갔다.

“스포츠를 그깟 공놀이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스포츠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프로선수들이 그렇죠. 날이 갈수록 저는 선수들의 인생 이야기에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스포츠가 삶인 이들의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경기 보는 재미도 더 생기고, 전해주릴 이야기도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요.”



2017-2018 시즌 활약 선수와 팀을 예상해보다면?

같이 마음을 맞춰온 세월이 길다 보니 올해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 입을 모아 이강원 선수를 꼽았다. 신 캐스터는 “절대적인 외국인 선수가 있어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지난 시즌에 비해 트라이아웃 제도가 도입된 지 2번째 시즌인 올해에는 외국인 선수들의 역량 차이가 줄어들면서 국내 주 공격수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문성민, 김학민, 최홍석 등 각 팀의 키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 팀들의 순위 변동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KB스타즈의 라이트 윙 자리를 맡은 이강원 선수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 해설위원은 “상대팀 외국인 선수의 벽을 뚫는 것이 이강원 선수와 KB스타즈가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라며 “올해 팀들은 모두 전력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팀들의 가장 큰 전략을 강한 서브로 상대의 단조로운 공격을 만들어내고, 연속 득점을 이어가며, 브로킹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가 성적을 좌지우지할 것”이라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두 배구 전문가에게 올해 V-리그 판도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다. “4번의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갔지만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대한항공은 준우승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을 의심하지 않지만 올 시즌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대한항공 우승의 관건이라 봅니다.”

“신 캐스터 말처럼 대한항공은 가장 변화가 없는 팀 중의 하나로 최상의 구성을 가진 팀이라고 볼 수 있죠. 선수들의 결속력과 흔들리지 않은 마인드가 있다면 충분히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팀입니다. 지난 시즌 우승 팀인 현대캐피탈은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인 지난 시즌을 보냈죠. 안드레아스 선수가 잘해주고 있지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최민호 선수 자리를 대신하는 김재휘 선수가 얼마만큼 자리를 메워줄 수 있느냐가 우승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배구여신 김보경 아나운서 Mini Interview



- Q. 스포츠 아나운서로서 현장의 매력은?**

우선 감독, 선수들과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 보니 내부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는 상황에서 경기를 보니까 더 집중하게 되고, 선수들이나 경기 상황에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 Q. 이번 시즌 인터뷰를 하며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전지훈련 동행을 통해 선수들이 어떤 마음으로 배구를 대하고 있는지 그 진심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선수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깊게 담아낼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선수들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 Q. 배구의 매력은?**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날씨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라는 점, 그리고 강 스파이크 할 때의 소리나 모습이 청량함과 쾌감을 선사해주는 시원한 스포츠라는 점이 있습니다.
- Q. 올 시즌 계획이 있다면?**

배구 팬들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꿀잼 보장! 국내 최초 배구 매거진

올 시즌 ‘리얼 배구 스토리’로 찾아온 <스페셜 V> MC 조진혁, 조은지 아나운서 인터뷰

‘겨울 스포츠의 꽃’ 프로배구 2017-2018 V-리그 개막과 함께 역사와 전통의 V-리그 매거진 <스페셜 V>가 돌아왔다. 배구여신 조은지, 새롭게 합류한 조진혁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배구계 소식, 코트 안팎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스페셜 V>에서 공개된다. 이번 시즌 MC를 맡게 된 조은지, 조진혁 콤비를 만나 <스페셜 V>의 리얼 배구 스토리 이야기를 들어봤다!

Q. 2007년부터 시작된 전통적인 배구 매거진 <스페셜 V> MC를 맡게 되셨어요. 소감과 두 분의 호흡은 어떠신가요?

- **조은지** 전통이 있는 매거진이다 보니 선배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스페셜 V> MC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작년에는 입문하는 배구인의 느낌이 었다면 올해는 좀 더 전문적이고 무게감 있는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 **조진혁** 다른 스포츠 종목 중계는 많이 해봤지만, 배구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아서 전문 매거진을 진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낯선 종목에 중계로 들어가는 일은 익숙하지만 매거진을 진행하는 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배구 관련 공부도 많

- 이 할 예정입니다. 함께 진행하는 조은지 아나운서는 침착한 면이 많아서 큰 실수를 많이 안 해요.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줘서 의지가 되는 선배님이죠(웃음).
- **조은지** 저도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부담감에 대해 이해가 되요. 근데 조진혁 아나운서는 워낙에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중계한 경험도 많고, 스포츠에 대한 매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은 안 돼요.
 - **조진혁** 사내에서는 같은 성씨라서 조조커플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서로 당숙모님, 조카님이라고 부르다보니 더 재밌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조은지** 작년에 호흡을 맞췄던 이호근 아나운서는 너무 동안이고 귀여운 외모여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부담이 좀 덜해진 것 같기도 하고(웃음).

Q. 배구 매거진을 진행하면서 배구가 예전과 남다른 의미로 느껴질 것 같아요. ‘나에게 배구란’ 한마디로 정의해보는다면?

- **조진혁** 배구는 지금의 저에게 모든 면에서 ‘넘어야 할 장벽’ 같은 존재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키가 큰 선수들을 만나다 보니 피지컬 적으로도 장벽 같은 느낌이거든요.
- **조은지** 지난 시즌 배구에 대해 깊이 알고 빠져들었던 시간이었어요. KBS N 입사 후 처음으로 한 시즌을 짝 팔로우한 스포츠가 배구라서 배구는 저에게 ‘첫사랑’ 같은 존재’입니다.

Q. <스페셜 V>의 코너 중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하고 싶거나 애착이 가는 코너가 있다면?

- **조은지** <그웨잇&스튜핏>은 알럽베에서 선보이는 <미스&나이스>의 배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팀의 승패를 떠나 가볍게 웃으면서 재미있게 즐길만한 코너예요.
- **조진혁** <다 같이 산다>는 저희 두 명이 직접 선수들의 숙소를 찾아가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요. 선수들의 편한 일상이나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어 팬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코너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스페셜 V> 촬영에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Q. 작년과 비교했을 때 <스페셜 V>의 변화나, 특별한 자랑거리를 꼽아주신다면?

- **조진혁** 무거운 분위기를 탈피했다는 점. 스포츠 매거진을 보다보면 너무 진지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집중이 안될 때도 있더라고요. 팬 분들이 가볍고,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균형이 잘 맞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 **조은지** 분석 위주의 다른 프로그램보다 <스페셜 V>는 선수들의 특별하고 인간적인 모습들, 코트 밖 선수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보여드리는 것을 주로 삼고 있어서 ‘선수가 주인공인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Q. <스페셜 V> MC로 임하는 각오와, 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조은지** 지난 시즌에는 야구와 겹쳐 플레이오프를 같이 못한 아쉬움이 컸어요. 이번 전지훈련에 동행하며 배구장에 들어섰는데, 스파이크 때리는 시원한 소리에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지난 시즌과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는 시즌입니다.
- **조진혁** 씨름, 야구 하이라이트 더빙, 아마추어 경기 중계까지 야구 중계 빼고 거의 모든 종목을 다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스페셜 V> MC로, 그리고 배구 중계 캐스터의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스페셜 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 **조진혁** <스페셜 V>는 매 시즌마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즌과 또 다른 코너들도 많이 선보이게 되었고요. 어떻게 하면 배구 팬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시즌이라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은지** 좀 더 파릇파릇한 젊고 신선한 매력으로 기대 이상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흔히 선수들이 2년 차가 되면 잘 안 풀린다는 징크스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2년 차 징크스를 깨고 작년보다 더 좋아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방송시간 KBS N SPORTS 매주 월요일 밤 9시 방송



2030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채널경쟁력 강화!

로코부터 스릴러까지 KBS joy 젊고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간다!

KBS JOY 채널이 젊고 독특한 감각의 웹 드라마를 연이어 선보이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로맨틱코미디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가까운>에 이어 최근 방영된 스릴러 <FAKE>까지

KBS JOY 채널은 2030 젊은 시청자에 특화된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해 대한민국 대표 엔터테인먼트 채널로서의 위상을 높여가는 중이다.



강민아 최원명 서지희 김재홍 CP 김현기 연출 한수지 각본 김사라 제작 와이넷미디어



2030 맞춤형 웹 드라마 편성으로, KBS JOY 채널에 새로운 색을 입히다



(제작사: 72초 TV)

사랑, 우정, 취업, 일상의 이야기를 독특한 시선과 기획력으로 풀어내는 3분~30분 길이의 웹 드라마가 2030세대의 동질감을 높이며 이슈를 형성하고 있다. KBS JOY는 이러한 2030세대를 공략할 수준 높은 웹 드라마를 선별해 소개하며 채널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KBS JOY 채널은 30대 싱글녀의 평범한 회사에서의 일상과 연애 등을 담담히 보여주며 공감을 이끌어낸 72초 TV의 대표 히트작인 <오구실>을 시작으로,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가까운>, <FAKE: 나는 없고 나는 많다> 등을 순차적으로 편성하며 채널의 정체성을 강화해가고 있다. KBS JOY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웹 드라마 개발을 통해 채널과 웹 콘텐츠의 동반 상승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제작사: 와이넷미디어)



<FAKE: 나는 없고 나는 많다>

첫 방송 소식에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 보여!

믿고 보는 웹 드라마를 만들어온 72초 TV의 첫 장편 <FAKE>의 기대감이 고스란히 KBS N 공식 페이스북에서 선보인 첫 방송기념 퀴즈 이벤트로 이어졌다. “새로운 장르의 페이크, 많이 기대되는 만큼 응원합니다”, “월, 수, 금 오후 5시! 완전 찜나게 보고 있어요”, “KBS JOY 방송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등 평소보다 많은 댓글과 참여가 이루어지며 뜨거운 반응과 관심을 보였다.

<FAKE: 나는 없고 나는 많다>는 <직업탐구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불러 모았던 변장전문가 편의 에피소드들을 재구성하고 추가 편집해 90분 분량으로 선보였다. 할아버지, 환경미화 일을 하는 아줌마, 거리의 가수, 심지어 무기징역수까지 수많은 얼굴로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다. 그의 정체는 알려진 바 없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파원’이라 부르고 미스터리한 인물들과 예측 불가한 사건에 휘말린다. 거듭되는 반전과 놀라운 결말에 90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흡인력 높은 이야기. 밀도 높은 스릴러와 긴장을 적절히 이완해주는 코미디가 조화롭게 전개된다. 배우 이제훈 등 출연 배우들의 색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다.

로맨틱코미디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가까운>

역대 편성한 웹 콘텐츠 중 가장 높은 시청률 기록

오랜 친구였던 남녀가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끼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가까운>, 10월 첫 주, 추석 연휴 기간에 연속 편성된 이 드라마는 KBS JOY 채널에서 역대 편성한 웹 콘텐츠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친구인 줄만 알았던 아이가 어느덧 가슴 설레는 존재로 다가올 때, 그 낯설고 당혹스러운 감정에 고민해본 적이 있다면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가까운>의 이야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변화하는 관계는 드라마나 대중가요 속에서 무수히 반복된 테마지만 사랑보다는 멀고 우정보다는 가깝다고 노래하던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곡만큼 유명한 작품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하철 4호선 사당역과 의정부역 사이에 빗대어 지은 제목은 듣자마자 호기심을 자극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제작사: 72초 TV)



성(性)에 관한 속 시원한 이야기

KBS N 웹 예능 <성성정보통>

그냥 지나치면 스텝!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웃음을 전해주는 KBS N에서 성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신 장르의 예능을 선보인다. 잘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끔찍 앓는 ‘성(性)’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웹 예능 프로그램 <성성정보통>은 개그우먼 홍현희와 여성 비뇨기와 전문의 이선규 원장이 함께 성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모두가 어려워하는 성에 관한 궁금증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줄까?



‘쿨(Cool)’하게 묻고 답하는 성(性)에 관한 거침없는 대화

성(性)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개방된 성의식과는 달리 성에 관한 지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성인들의 인식은 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미디어를 통해 접한 왜곡된 지식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 성인이 되어서도 성(性)에 관한 대화를 꺼리거나 어렵게 여기는 것은 성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KBS N 웹 예능 <성성정보통>은 잘 알지 못해서 혼자 끔찍거리고,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성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공개 코미디를 통해 관객들에게 통통 튀는 매력을 선보인 개그우먼 홍현희가 MC를 맡아 거침없는 질문과 입담을 선보이고, 닥터싱어이자 여성 비뇨기와 전문의 이선규 원장이 유쾌하고 꾸밈없는 답변을 풀어낸다. 특히, 사연을 바탕으로 고민과 솔루션을 제시할 때는 MC 홍현희의 맛깔나는 입담과 이선규 원장의 해박한 지식이 어우러져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한다. 성 지식부터 남성·여성별 성 고민까지, 수준 높은 성 담론을 펼칠 두 사람의 흥미로운 대화가 궁금해진다.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

차마 물어볼 수 없었던 성에 관한 고민은 물론 건강하고 올바른 성 지식을 제공하는 KBS N 웹 예능 <성성정보통>



흥미롭고 아름다운 성(性) 제대로 알아야 그웨잇!

<성성정보통>은 성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낯 뜨겁고(?)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그간 풍문으로만 들었던 성에 대한 소문과 썰에 대한 진실, 거짓을 파헤치는 ‘진실 혹은 거짓’을 비롯해 고민과 궁금증을 짚어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성인용품의 진화론 ‘도구의 활용’, 스스로 위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한다’, 성기능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이래도 괜찮은 건가’ 등 성에 관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여기에 산부인과와 비뇨기과를 상황별 비교·안내하고 검진과 운동, 주의사항에 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주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 차마 물어볼 수 없었던 성에 관한 고민은 물론 건강하고 올바른 성 지식을 제공하는 KBS N 웹 예능 <성성정보통>은 10월 25일 네이버TV에 첫 공개되며 매주 1회, 총 8주에 걸쳐 선보일 예정이다.



성에 대한 모든 것! <성성정보통>
방송시간 네이버 TV 10월 25일 첫 방송(매주1 회, 총 8편 공개)

특급 셰프들의 최고의 만찬이 함께한 특별한 여자프로농구단 전지훈련 현장!

 개막특집 <셰프가 간다>



여자프로농구 선수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기 위해 대한민국 탑 셰프들이 일본에 떴다! 현지 시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재료들을 고르고, 익숙지 않은 주방에서 몇 십 명분의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특급 미션을 받은 셰프들! 과연 그들은 성공적으로 선수들에게 최고의 만찬을 대접할 수 있을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선수들을 위한 ‘원기회복 이벤트’ 이태원의 황태자 홍석천, 최고의 한식 셰프 이원일, 1세대 원조 스타 셰프 쿡킹마초 레이먼 김, 일식의 진정한 고수 귀요미 정호영 셰프까지 내로라 하는 국내 최고의 셰프들이 전지훈련을 떠난 여자프로농구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각각 시즈오카와 나고야로 특별한 요리출장길에 올랐다. 지난 9월초, 여자프로농구 선수들은 시즌을 앞두고 향상된 실력과 좋은 컨디션 유지를 위해 일본 각지에서 일본 상대팀과 모의시합 등 맘을 흘리며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KBS N SPORTS는 가장 힘들고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기 위해 <셰프가 간다>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정성이 가득 깃든 우승기원 스페셜 잔치상!

지난 9월 6일, 방송인 홍석천과 이원일 셰프가 먼저 우리은행 선수들의 전지훈련 장소인 시즈오카로 향했다.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시미즈항에 위치한 청수어시장에 들러 재료를 구입하고 바쁘게 움직인 두 사람 덕분에 어느새 김치찜, 해물매운탕, 잡채, 한치회 무침, 참치 육회, 카프레제 셀러드 등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졌다. 여기에 통합 5연패를 달성한 우리은행의 사령탑 위성우 감독과 코치들이 합세해 환상적인 호흡으로 선수들을 위한 모듬전을 만들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베스트 메뉴는 이원일 셰프가 한국에서 공수해간 김치로 만든 깊은 맛의 김치찜. 처음해보는 요리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감독님이 손수 만든 음식까지 맛있게 먹은 우리은행 선수들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 “부상 없이 무사히 경기하길 바란다”면서 평소 잘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얘기를 서로 나누며 행복 가득한 전지훈련의 마지막 날을 보냈다.



투닥 투닥 세 사람의 음식 미션 대성공!

두 번째 <셰프가 간다>의 주자는 레이먼 김과 정호영 셰프, 그리고 일일 주방보조로 나선 KBS N 영상엽 아나운서, KEB 하나은행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9월 12일 나고야로 떠난 세 사람 앞에 첫 끼를 해결하기 무섭게 20명 하나은행 선수단 전원의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미션이 떨어졌다. 프로 셰프도 당황하게 만드는 대량의 음식 준비와 좁디 좁은 주방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로 도와가며 소꼬리 라구파스타와 문어샐러드, 속을 채운 닭 날개 튀김과 장어구이를 완벽하게 준비한 세 사람. 훈련을 마치고 식당에 들어온 선수들은 TV에서 보던 셰프들의 등장에 한번 놀라고, 맛있는 음식에 또 한 번 감동을 느끼며 연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냈다. 선수들을 위해 낯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맘을 흘리며 음식 준비에 몰두한 셰프들의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WKBL 개막특집으로 준비한 <셰프가 간다>가 훈련으로 지친 선수들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되어 고생하며 노력한 만큼 올 시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웃음, 짝내, 설렘, 공감의 완벽 조화!

KBS, KBS N이 공동 제작한 〈고백부부〉 쾌조의 스타트!

KBS N이 공동 기획 제작에 참여한 예능 드라마 〈고백부부〉가 KBS Drama 채널에서 30대 여성 타깃 최고 3%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고백부부〉는 상상초월 인생 체인지 타입슬립 드라마로, 38살에서 20살로 돌아가 청춘 라이프를 즐기는 주인공들의 변신 모습과, 각자 다른 상대방과의 사각 로맨스의 이야기가 펼쳐지며 극의 재미를 더해가고 있다.



양숙부부의 과거 청산, 상상초월 인생체인지
예능 드라마 〈고백부부〉 순항 중!



드라마의 감동과, 예능적 코믹 코드가 잘 어우러졌다는 평을 듣고 있는 〈고백부부〉가 처음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이유는 현실 커플과 부부의 실제 이야기를 고스란히 풀어낸 듯한 짝내 나는 모습이다. 가족을 위해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생계형 가장 최반도와, 제대로 앉아서 식사할 시간이나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는 독박육아 인생 마진주가 보여준 진정성 있는 장면들은 시청자들의 특급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후 20살로 돌아가 각자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된 주인공들은 티격태격 케미와, 첫사랑의 향수를 자극하는 달달하면서도 풋풋한 연기를 선보이며 웃음과 설렘의 콜라보를 선사하고 있다. 빠른 전개와 찰진 감정 연기, 촌촌한 제작이 어우러진 〈고백부부〉는 1, 2회 만에 입소문을 타고 흥행 순항 중에 있다.

〈고백부부〉와 함께 10월 중 새로 선보인 신규 드라마 〈매드독〉, 〈마녀의 법정〉도 시청자들의 관심 속에서 시청률 호조와 더불어 높은 화제성까지 보여주고 있어, KBS 드라마 전성시대 도래에 대한 기분 좋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고백부부〉의 이유 있는 인기 비결!

현실부부들의 고충부터
90년대 향수 자극까지
새로운 70분 순삭드라마의 탄생!

5분마다 웃기고 울리는 웃음과 감동이 반반 섞인 일명 맛깔 나는 '짹자면 드라마'로 불리는 〈고백부부〉. 회차를 거듭할수록 연이은 호평을 받으며 꽃길을 걷고 있는 〈고백부부〉의 인기비결은?

통통 튀는 개성만점 캐릭터!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고백부부〉 캐릭터별 특징!



마진주

사학과 수석 각쟁이 엘리트에서 독박육아 서른여덟 애 엄마로. 그런데 다시 스무살이 됐다?
#결혼은_미친짓이다 #스무살이된서른여덟 #하늘아주신기회 #어디한번 바꿔보자내인 #인생_2회차



최반도

한때 열혈 상남자였지만 이젠 눈치코치로 먹고사는 영업직원. 짱짱했던 20살로 돌아온 사실이 너무 좋다!
#이혼남에서_스무살 청춘으로 #능글미_만렙 #중년의노련함 #난_절망이스무살들과_달라 #판교에땅사자!



정남길

ROTC 출신의 잘나가는 스타 한 국사강사. 이번엔 짹사랑 마진주와 핑크빛 사랑을 키워갈 수 있을까?
#600억CEO #이사장아들 #원조엄친아 #츄데레 #제목판타지#연상인듯_연상아닌_15살차이_연하남



민서영

최반도의 첫사랑이자 발레하는 청순녀. 어느 날 능구렁이가 되어 나타난 최반도가 신경 쓰인다.
#무용과99학번 #남심저격미소 #한국대권카 #첫사랑대명사 #에대 마스코트 #합합 #비트

예능+드라마의 좋은 예!
'단짠'을 오고가는
절묘한 조화

인생캐릭터 만난 배우들의 빙의연기



진주를 위해 자신의 왼쪽 어깨가 흠뻑 젖도록 우산을 양보하는 남길



만취한 고독재가 교문에 목이 끼어서 목에 칼을 찬 춘향이가 된 장면!



대학교 축제날 토목과 부스에서 진주가 물풍선 던지기로 반도에게 복수하는 장면



버스 창문에 아기 발바닥 모양을 그리며 아들 서진을 떠올리며 오열하는 마진주

세계인의 문화 축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개막!

총괄대행사 KBS N, 성공적 개최 준비 완료!
베트남 호찌민 현지 개막식 KBS N 이준용 대표를 비롯 실무 관계자 참석
한·베 패션쇼 KBS N 조은지 아나운서 사회, 폐막식 신승준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



한국, 베트남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귀엽고 친근한 모습의 마스코트

‘문화 교류를 통한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주제로 열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가 베트남 호찌민에서 오는 11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총 23일간의 문화 향연을 펼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국제행사 개최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KBS N은 지난 7월 CJ E&M과 대행사로 선정되어 총괄진행을 담당해왔다.

엑스포의 포문을 여는 개막식에는 KBS N 이준용 대표이사를 비롯해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한·베 패션쇼 사회는 조은지 아나운서, 폐막식 사회는 신승준 아나운서가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민속공연, K-EDM 페스티벌 등의 신나는 공연과 한국문화존, K-Culture존, 기업홍보관 등의 전시영상 체험 및 학술회의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진 이번 ‘호찌민-경주세계문화 엑스포 2017’는 베트남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한편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개막식을 비롯해 주요 행사의 생생한 현장의 모습들을 KBS N 공식 페이스북 북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KBS N, 전국시각장애인복지대회 감사패 수상



KBS N이 지난 10월 17일 청주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 ‘제38회 현지팡이날 기념 전국시각장애인복지대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와 (사)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대표 박상재) 주관으로 충북도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전국 시각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KBS N은 시각장애인의 TV 시청 불편을 이해하고 이용 장애를 걷어내는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실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차출퇴근제’,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유치



KBS N의 가족친화제도 ‘시차출퇴근제도’가 고용노동부 유연근무 노무비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KBS N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는 일, 가정양립 및 효율적 조직문화 구축의 일환으로 가족 돌봄, 자기계발, 생활여건 등의 사유로 유형별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설정하여 개인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KBS N은 이번 지원금 유치로 1인당 연간 최대 52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많은 직원들의 관심 속에서 제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S N 10월 월례조회 개최



지난 10월 31일 오전 9시 KBS 미디어센터 심석홀에서 KBS N 10월 월례조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월례조회는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상, 모범상 표창이 수여되었다.
월례조회에 참석한 이준용 대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때”라며 “유종의 미도 중요하지만 내년 2018년에 대한 대비를 위해 사업계획,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KBS N이 되자”고 밝혔다.

KBS N - KT 스카이라이프, 강릉항여객터미널에 독도사랑 캠페인 ‘독도 실시간 영상관’ 보급



KBS N과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강릉항여객터미널에 ‘독도 실시간 영상관’을 기증했다.
이에 따라 울릉도,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 강릉항여객터미널을 찾은 이용객들은 ‘독도 실시간 영상관’을 통해 독도의 생생한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독도사랑 캠페인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명백한 영토임을 재천명하고, 독도 실시간 영상 보급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대국민 독도사랑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2017-2018 프로배구



잊지 못할 짜릿한 승부의 순간!

KBSN SPORTS와 함께하세요!

웃음이 희망입니다
KBS N

네트워크로 하나되는 콘텐츠 미디어 전문 기업

KBS N

KBS N은 KBS Drama(드라마), KBS Joy(엔터테인먼트),
KBS N Sports(스포츠), KBS W(여성),
KBS Kids(어린이), KBS N Life(교양, 다큐) 등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6개의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콘텐츠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KBS N.

다양한 6개 채널을 통해 KBS N만의
즐겁고 유익한 뉴미디어 콘텐츠 세상을
만나보세요.

KBS Drama

KBS Joy

KBSN SPORTS

KBS W

KBS Kids

KBSN Life

광고사업, 공연/문화사업, 스포츠사업, 브랜드사업, 키즈사업, 콘텐츠유통사업